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3 Serial No.141 2016.6. 15~26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3.15

소비자 식품안전 체감도에 따른 식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Consumers on Dietary Satisfaction to Sentiment Index about Food Safety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Reliance to Food Safety Information

임해파(Hai Bo Lin)[1], 이승신(Seung Sin Lee)[2*]

[1]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2]Department of Global trade and Consumer, Konkuk University

---

<Abstract>

Food is a kind of unconditional element for the health and survival of humanity. Eating is the most principle desire for humans among others, which can make humans feel stability and pleasure when the desire is well satisfied. The attention to food safety is increasing and food safety accidents are happening constantly, which makes the anxiety to food safety become more serious. Especially after the WTO, the floating of food hazards between countries are increasing, which makes the problems of food safety not just limited to inland but has become a matter of common interest internationally in this liberalization era. Therefore, institutional preparation and persist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necessary for increasing dietary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securing food safety. Meanwhile, the consumers also need to understand and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and have the ability of personally pursuing a safe diet. In this study, sentiment index about food safety and dietary satisfaction were centered on Korean consumers and th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dietary satisfaction were analyzed. Moreover, whether the reliance to food safety inform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and satisfaction to dietary food was also confirmed.

The main results were different with those concluded by J. Yun and S. Joo (2014). The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was decided by the reliance to food production·distribution·provision safety, anxiety to food varieties, and food token. The reliance to food production·distribution·provision safety was lower than the average level. The anxiety to food varietie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The reliance to food safety information was generally lower than the medium level which showed the distrust to food safety information. The satisfaction of diet by the consumers showed a slightly lower level than the average level. In addition, the reliance to food safety inform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sentiment index about food safety and dietary satisfaction. Therefore, the consumer organizations or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pand various consumer education related to food safety in order to apprehend the concrete variables which can hav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diet and transform the precise information into accurate knowledge.

▲주제어(Key words) : 식품안전 정보 신뢰(reliance to food safety information), 식품안전 체감도(sentiment index about food safety), 식생활 만족도(dietary satisfaction)

* Corresponding Author : Seung Sin Lee, Department of Global trade and Consumer,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Tel: +82-02-450-3778, E-mail: Lchung@konkuk.ac.kr

Ⅰ. 서론

21세기는 생활수준의 향상,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최근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경우 소비자 문제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식품의 소비는 소비자가 매일 직접적으로 섭취하며, 인간의 건강 및 생명과 민감하게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식품의 양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식품의 품질 보증, 관리 등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큰 이슈로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소비자들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소비자주권의 실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식품안전사고,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시스템, 시장환경 등의 총체적인 사회적 식품안전 분위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인 식품안전체감도로서 그 사회의 식품안전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도 못지않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체감도 혹은 민감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식품사고별 인지도, 위해 체감도, 관련 식품의 현재 섭취 빈도 및 향후 섭취 의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각 식품, 식품군, 식품사고에 대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체감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Korea Consumer Agency (2007)의 연구에서는 식품 14개 품목과 8개 주요 위해요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여 '소비자안전체감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식품안전의 실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식품안전을 달성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 식품 안전체감 및 역량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위험의 발생가능성과는 별개로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불안해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체감수준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H. Yoo & S. Joo, 2012).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의 합이 생활만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식생활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영양물을 제공하는 음식물과 관련된 일체의 생활상을 의미하며 한 개인의 식생활은 각각의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 등의 생활 형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변화되어 왔다(S. Moon, K. Sohn, Y. Kim & H. Jeon, 1989). 식생활이 소비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식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식생활의 안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H. Yoo & S. Joo, 2014). 식품 위해 정보전달이 잘못되거나 일관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은 정보전달주체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실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하므로(H. Yoo, E. Choi, S. Kim & J. Lee, 2011)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그 사회에 잠재된 위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시장의 현실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식품정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H. Yoo & S. Joo, 2014).

따라서 소비자들의 식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동시에 소비자들도 식품안전정보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 체감도, 식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안전정보 신뢰가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 수준에 관한 계략적인 측정이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요하며, 소비자들은 식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불안을 경감하는 정책방안과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품안전체감도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 혹은 그 주변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K. Huh, 2011). 즉, 제품으로부터의 위해나 위험을 입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안전은 다양한 소비자 위험요인 또는 위해요인으로부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를 의미한다(S. Bae, S. Kim, K. Lee & H. Kim, 2006).

소비자안전체감이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소비자 안전 수준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체감 측정은 한 사회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한 지표이며, 실제 발생한 위해, 안전사고 등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감을 의미한다(C. Hwang, 2010). P. M. Sandman(1993)은 위험을 객관적인 위해와 주관적인 불안감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위해의 예방 및 감축'과 '안전 불안감의 관리 및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 경제가 발전하여 소비자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졌다. 일반소비자들은 피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고려하고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수많은 경험을 고려하여 위험을 정의해, 소비자 체감수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H. Yoo & S. Joo, 2012).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T. Han, 1998). 즉 식품안전체감도는 각 식품 및 식품군별, 식품사고별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안전체감지수의 주요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품 및 식품군별 안전체감 정도를 파악, 식품안전정책의 초점을 각 대상 식품별 안전체감 정도를 높이는 기능이나 제도에 맞추도록 유도한다. 둘째, 통계기법을 적용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와 조사결과의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식품정책을 수립한다. 셋째, 구체적인 조사 자료는 식품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한 식품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독립성 있고 조사 방법론적 지식을 갖춘 정부이외의 기관에 의해 식품안전실태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고, 그 조사결과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 식품안전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Korea Consumer Agency, 2009).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체감을 적용할 수 있는 H. Yoo and S. Joo(2012)이 개발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척도와 같아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소비자의 식품선택과 사용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인지하는 식품안전의 실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체계로 연구할 것이다.

2. 식품안전 정보 신뢰도

소비자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내용을 말한다(Y. Kim, H. Lee, D. Yoo, E. Lee, & S. Kim, 2002). 소비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고 이를 검토하는 내적정보탐색의 과정을 거쳐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데(M, Park, I. Song & M. Park, 2007), 이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즉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거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는 추가적으로 외적정보탐색을 시도하게 되는데(A. Choi & J. Rha, 2012) 소비자가 탐색하는 정보의 질은 소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과학지식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들은 기술의 위험과 편익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판단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때문에 지식이 부족할 때 소비자들은 지식에 근거한 판단 대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M. Siegrist & G. Cvetkovich 2000).

E. Song and H. Yoo (2008)의 연구에서도 식품 구매시 지각된 위험이 정보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안전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식품선택기준이 안전지향으로 변화되었으며, 다양한 원인의 여러 식품안전사고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필요를 증대시켰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식품안전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식품안전 정보의 인지, 정보관리, 정보의 불충분성,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신성과 관련된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J. Choi, 2009; C. Hwang, 2009; H. Kim & M. Kim, 2009; H. Kim, 2008; H. Song, 2006), 식품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 경험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적정도를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C. Kim, 2010; H. Song, 2006; H. Yoon, 2007)들이 이루어졌다.

식품에 관한 정보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위험

지각 또한 높아지며(S. Rossati & A. Saba, 2004), 지각된 위험은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안전의식은 안전지향성과 안전문제인식도로 구분된다(E. Song & H. Yoo, 2008). 따라서 안전의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 안전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 소비자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관련 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관여도는 관성적으로 대상에 주의. 집중하는 것을 넘어 몰입하게 된다(M. Solomon, 2011). 이때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취하지 못하면 관련 대상에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요구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는 정보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정보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매스컴, 전문기관, 생산제조, 유통업자, 시민소비자단체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뢰를 파악하고 식품안전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 간에 식품안전정보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식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은 B. Neugarten, J. Robert, and S. Tobin(1961)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 Meadow(1983)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정도는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과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 간의 인지적인 비교의 함수라고 역설하면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평가한다면 그는 만족할 것이고, 스스로를 더 못하다고 평가한다면 불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생활만족도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기준 또는 표준에 따라 그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신의 생활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식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의 일대 전기였던 1960년대 초를 시점으로 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 산업 구조의 변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직업의 분화, 여성 노동력 수요의 증가, 교육 수준의 상향화, 가족 규모의 축소 등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식생활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K. Cho, 2013). M. Hargreaves, D. Schlundt and M. Buchowskib(2002)은 식생활에 대한 감정의 정도는 축하행사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식생활 즐거움 및 기쁜 감정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적절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고려되어지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식생활 중요성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식생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정보 요구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식생활 안전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A. Choi, 2011). 또한 P. Slovic(1999)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은 신뢰가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며, 전세계 소비자의 안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신뢰를 간과할 수 없기에 소비자 신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국가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Y. Lee & S. Lee, 2014).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소비자의 특성별로 살펴봄으로써 식품안전에서 기본적인 사항인 식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 식품안전정보 신뢰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Table 1. Scales

Variable		Item	Cronbach's α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degree, marriage, job, area, income	
Independent variable	Safety Standard of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provision	The agro-livestock farmers produce the food safely. The agri-food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The processed food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The food-service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The distribution dealer distribute food sanitarily. The food distributors provide food safely.	0.702
	Anxiety level to food varieties	Anxiety to imported food. Anxiety to fast food. Anxiety to processed meat products. Anxiety to frozen food. Anxiety to instant food. Anxiety to processed food. Anxiety to out-eating food. Anxiety to food cultivated with agricultural chemicals.	0.906
	Reliance Standard to food label	Reliance to expiration date label Reliance to manufactured date Reliance to domestic production label. Reliance to nutrition label. Reliance to production area and original area label. Reliance to food additives Reliance to gene recombination	0.919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media (TV, newspaper, magazine).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specialized institution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sumer Agency)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manufacture.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from distribution dealers.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from Citizen consumer associations.(Citizen Organization, human rights charity consumers union, labor union)	0.782
dietary satisfaction		My consumption life is generally close to what I hoped. My qualification to consumption life is quite high. I am satisfied with my consumption life. I have got the principle things that I want by my consumption life until now. I would not like to change my consumption life if I were born again.	0.920

<연구문제 4>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 관계에 대한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로서 척도구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 식품안전 체감도, 식품안전정보 신뢰, 식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 월평균소득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품안전체감도, 식품안전정보 신뢰, 식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K. Cho, 2013; E, Jang, 2010; E. Kim, 2003; Y. Lee & S. Lee, 2014; P. Slovic, 1987; Y. Song & H. Yoo, 2008; H. Yoo & S. Joo, 2014)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식품안전체감도는 5점 리커트 21문항, 식품안전정보 신뢰는 5점 리커트 5문항, 식생활만족도는 5점 리커트 5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식품안전체감도, 식품안전정보 신뢰, 식생활만족도에 관한 각각의 문항별 신뢰도인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각각 0.7이상으로 문항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500(100)

Variable	Group	N	%
Gender	Male	250	50.0
	Female	250	50.0
Marriage	Married	350	70.0
	Single	150	30.0
Age	20s	100	20.0
	30s	100	20.0
	40s	100	20.0
	50s	100	20.0
	over 60s	100	20.0
	M(SD)	43.91(13.94)	
Degree	High School	178	35.6
	Bachelor	322	64.4
	M(SD)	15.09(1.94)	
Job	Profession/Technic/Government	64	12.8
	Employee	212	42.4
	Business/Sale/Service	83	16.6
	Housewife/Student/Other	141	28.2
Area	Seoul	198	39.6
	Metropolitan city	147	29.4
	Other	155	31.0
Income	2,000,000 and less	156	31.2
	2,010,000-4,000,000	162	32.4
	4,010,000 and more	182	36.4
	M(SD)	364.22(217.40)	

3.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예비조사는 2015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40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일반성인소비자 20대~60대 500명으로 2015년 4월10일~4월25일까지 온라인리서치 업체 나우앤퓨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되었으며, 표본 추출은 지역,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유의할당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식품안전체감도, 식품안전정보 인식, 식생활만족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증연구 검증은 SPSS for Window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용돈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Ⅳ. 연구결과

1. 소비자 식품안전 체감도의 수준

1) 식품생산유통제공 안전도의 수준

소비자의 식품생산유통제공 안전도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3>. 문항별로 보면 '농축산 농민들은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는 평균 3.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농식품 생산 업체는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3.38, '급식업체는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한다.' 3.13, '가공식품 생산 업체는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한다' 3.08, '외식

Table 3. Safety Standard of food production·distribution·provision

Variables	M	SD
The agro-livestock farmers produce the food safely.	3.42	0.75
The agri-food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3.38	0.78
The processed food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3.08	0.92
The food-service enterprises produce the food safely.	3.06	0.89
The distribution dealer distribute food sanitarily.	2.95	0.92
The food distributors provide food safely.	3.13	0.89
Total	3.17	0.69

Table 4. Anxiety level to food varieties

Variable	M	SD
Anxiety to imported food.	3.59	0.82
Anxiety to fast food.	3.71	0.78
Anxiety to processed meat products.	3.59	0.78
Anxiety to frozen food.	3.54	0.86
Anxiety to instant food.	3.76	0.82
Anxiety to processed food.	3.66	0.81
Anxiety to out-eating food.	3.49	0.82
Anxiety to food cultivated with agricultural chemicals.	3.83	0.86
Total	3.65	0.60

Table 5. Reliance Standard to food label

Variables	M	SD
Reliance to expiration date label	3.54	0.74
Reliance to manufactured date	3.57	0.75
Reliance to domestic production label.	3.37	0.86
Reliance to nutrition label.	3.38	0.81
Reliance to production area and original area label.	3.40	0.86
Reliance to food additives	3.25	0.89
Reliance to gene recombination	3.11	0.85
Total	3.37	0.63

업소는 안전하게 식품을 제공한다' 3.06, '유통업자는 위생적으로 식품을 유통한다' 2.9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소비자의 식품불안감의 수준

소비자의 식품별 불안의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5점 만점에 3.65점으로 보통수준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문항별로 보면 '농약재배 식품은 불안하다'는 평균 3.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인스턴트 음식은 불안하다' 3.76, '패스트푸드는 불안하다..' 3.71, '가공식품은 불안하다' 3.66, '식육가공품은 불안하다' 및 '수입식품은 불안하다' 각각 3.59, '냉동식품은 불안하다' 3.54, '외식음식은 불안하다' 3.4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의 식품표시 신뢰의 수준

소비자의 식품표시 신뢰의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5점 만점에 3.37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5>. 문항별로 보면 '제조일자 표시를 신뢰한다'는 평균 3.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통기한 표시를 신뢰한다' 3.54, '생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신뢰한다.' 3.40, '식품의 영양표시를 신뢰한다' 3.38, '국내산 표시를 신뢰한다' 3.37, '식품첨가물 표시를 신뢰한다' 3.25,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를 신뢰한다'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

Variables	M	SD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media (TV, newspaper, magazine).	3.64	0.81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specialized institution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sumer Agency)	3.83	0.77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on manufacture.	3.21	0.85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from distribution dealers.	3.04	0.91
Trust the food safety information from Citizen consumer associations. (Citizen organization,Human rights charity consumers union, labor union)	3.75	0.74
Total	3.50	0.57

Table 7. Standard of Dietary life satisfaction

Variables	M	SD
My consumption life is generally close to what I hoped.	4.06	0.70
My qualification to consumption life is quite high.	3.63	0.74
I am satisfied with my consumption life.	3.47	0.77
I have got the principle things that I want by my consumption life until now.	3.80	0.76
I would not like to change my consumption life if I were born again.	3.50	0.82
Total	3.69	0.56

2. 식품안전정보 신뢰

소비자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평균 3.50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6>. 문항별로 보면 '전문기관(식약처, 농림부, 소비자원 등)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는 믿을 수 있다'는 평균 3.8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시민소비자단체(시민단체, 인권/자선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는 믿을 수 있다.' 3.75, '매스컴(TV, 신문, 잡지)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는 믿을 수 있다' 3.64, '생산제조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는 믿을 수 있다' 3.21, '유통업자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는 믿을 수 있다' 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통업자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유통업자에서 얻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뢰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3. 식생활만족도

1) 식생활만족도의 수준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생활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야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나의 소비생활은 대체로 내가 희망하던 이상에 근접한다'는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소비생활에 만족한다' 평균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전체 변수간의 결혼여부를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Tolerance 0.1을 초과하고 VIF 값이 10미만으로서 독립변수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 직업, 거주지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으며, 조절효과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입력하게 되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변수들을 중심화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식생활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식품안전체감도를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의 설명력은 17.4%로 나타났으며,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식품생산유통제공안전(β=0.31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식품별불안감(β=-0.153),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β=-0.15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dietary satisfaction

Variable		Group	Model 1	Model 2	Model 3
			B(β)	B(β)	B(β)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224(-.153)**	-.225(-.153)***	-.216(-.147)***
	Age		.000(.006)	-.001(-.016)	-.001(-.019)
	Area	Metropolitan city	.014(.038)	.012(.033)	.013(.034)
		Other	-.025(-.015)	-.018(-.011)	-.006(-.004)
	Degree		-.093(-.058)	-.089(-.056)	-.085(-.054)
	Job	Profession/Technician/Government	-.094(-.043)	-.088(-.040)	-.081(-.037)
		Employee	-.007(-.005)	-.017(-.011)	-.011(-.008)
		Business/Sales/Service	-.182(-.092)	-.179(-.091)	-.171(-.087)
	Income		.000(.043)	.000(.032)	8.640E-05(.026)
Independent variable	Safety Standard of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provision		.327(.319)***	.251(.246)***	.256(.250)**
	Anxiety level to food varieties		-.180(-.153)***	-.152(-.129)**	-.129(-.110)*
	Reliance Standard to food label		.031(.028)	-.007(-.006)	-.001(-.001)
Moderating variable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			.229(.179)***	.215(.168)**
Interaction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Safety Standard of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provision				.172(.118)**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Anxiety level to food varieties				.129(.071)
	Reliance standard to food safety information*Reliance Standard to food labe				-.062(-.040)
Adjusted R2			0.174	0.193	0.202
Constant			3.187	3.281	3.259
F-value			9.754***	10.204***	8.878***

*p<.05 **p<.01 ***p<.001
Dummy: gender(male), area(Seoul), job(housewife/student/other)

Model 2에서는 이전에 포함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식품안전정보 신뢰 변수를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식품생산유통제공안전(β=0.319→0.246)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식품안전정보신뢰(β=.179),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β=-0.153), 식품별불안감(β=-0.153→-.129), 이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도 일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Model 2의 설명력은 이전 모델보다 높은 19.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정보신뢰가 식품안전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정부분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정보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전에 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식품안전체감도와 식품안전정보신뢰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3의 설명력은 20.2%으로 0.9%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투입한 상호작용 변수들 중에는 식품생산유통제공안전(β=0.11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식품안전정보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대상으로 식생활만족도가 수준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소비자의 실천이 낮은 식품안전 체감도가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상별로 차별화 된 적절한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와 관계에서 식품안전정보 신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식품안전체감도를 살펴보면 결과에서는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과 식품표시 신뢰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별 불안감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수입 농수축산물 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다름 식품에 대한 불안 수준보다 높은 결과는 식품 유형별로 소비자 불안이 다르다는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12)의 조사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위해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은 안전하다는 인식에 비해 평균보다 좀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표시 신뢰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서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불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체감도가 향상시키고 식품위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정보가 올바른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나 정부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안전 정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하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내용을 말한다(Y. Kim et al., 2002). 식품리스크 정보전달이 잘못되거나 일관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은 정보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실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H. Yoo et al., 2011). 지식은 수많은 소비자 정보들 중에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지각한 것을 사용가능 한 수준으로 내면화한 것으로 (Y. Kim et al., 2002), 소비자가 정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단체나 정부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며, 소비자들의 정보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전달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도 구축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식품안전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더 이상 식품은 생계 수단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식품안전 사건·사고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식생활만족도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과 식품표시 신뢰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별 불안감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하로 나타나, 식품안전정보에 대해 잘 신뢰를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 신뢰는 식품안전체감도과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가 올바른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나 정부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품안전정보 신뢰가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인 경우보다 여자인 경우, 식품안전 체감도 중에서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 식품별 불안감과 식품안전정보 신뢰가 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식품안전정보 신뢰는 식품안전 체감도 중에서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 식품별 불안감이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도 중에서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과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수준에 따라 식품안전 체감도 중에서 식품생산·유통·제공시 안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에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주로 가정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식품을 구입하고 조리하여 가족의 식생활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남자인 경우보다 민감하다. 식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에게 식품안전에 대해 교육홍보가 강화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법규를 강화한다 하여도 소비자들이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행복한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 정보시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당정보 및 거짓정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식품안전 사건·사고 또는 새로운 식품위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인 자세에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정보 신뢰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 구분해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원천을 구분하여 다양한 정보원천에서 제공한 정보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식생화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Bae, S. Y., Kim, S. C., Lee, K. H., & Kim, H. J.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 Seoul: Korean Consumer Agency.

Cho, K. H.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meals' dietary satisfaction that e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family streng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hoi, A. J. (2011). *Transfer system of dietary life safety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nsumer-based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Choi, A. Y., & Rha, J. Y. (2012). How do consumers search for information in multi-channel environment? : Consumer typology based on their choice of information chann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2), 135-164.

Choi, J. M. (2009). *Influence of some food hygiene-safety accidents on food labeling check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Han, T. H. (1998), Risk recognition and their acceptance in perspective of risk communication - Risk as a Social *Construction. Social research, 13*(1), 135-148.

Hargreaves, M. K., Schlundt, D. G., & Buchowskib, M. S. (2002). 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the eating behaviors of african american women: A focus group investigation. *Ethnicity & Health, 7*(3), 133-147.

Huh, K. O. (2011). An analysis of consumers' perceptions and behaviors for consumer safety of product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safety of products by economic agencies : Focused on information, education, and policy for safet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7*(3), 101-121.

Hwang, C. S. (2009).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 Seoul: Korea Consumer Agency.

Hwang, C. S. (2010).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 Seoul: Korean Consumer Agency.

Jang, E. A. (2010).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C. S. (2010). *Correlation between food safety related knowledge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Kim, E. M. (2003). *A study on risk perception and risk acceptabili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Kim, H. C., & Kim, M. R. (2009). Consumers' awareness of the risk elements associated with foods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regarding food safety.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9*(1), 116-129.

Kim, H. J. (2008).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knowledge and behavior on the food safety in daegu and gyeongbuk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Kim, Y. S., Lee, H. S., Yoo, D. Y., Lee, E. H., & Kim, S. G. (2002). *Understanding the consumer information management*. Seoul: Sigmapress.

Korea Consumer Agency. (2007). Consumers' Perceived Food Safety Index and Food Safety Competency Index.

Korea Consumer Agency. (2009). Consumer Injury

Information.

Lee, Y. H., & Lee, S. S. (2014). Analysis of consumer trust model regarding food businesses and government food safety polic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5*(2), 1-20.

Meadow, H. L.(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the United State.

Moon, S. J., Sohn, K. H. Kim, Y. H., & Jeon, H. J. (1989). Research: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counseling system for weight control of athletes - Part 1: A basic study for investigating dietary guideline of athletes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7*(3), 53-60.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Park, M. H., Song, I. S., & Park. M. S. (2007). *Consumer decision*. Seoul: Gyomoon.

Rosati, S., & Saba, A. (2004). The percep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food related hazards and the perceived reliabil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 Technology, 39*(5), 491-500.

Sandman, P. M. (1993). *Responding to community outrage*. Fairfax: Amer Industrial Hygiene Assn.

Siegrist, M., & Cvetkovich, G.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20.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 689-701.

Solomon, M. R. (2011). *Consumer behavior.* Seoul: Kyungmoon.

Song, E. G., & Yoo, H. J. (2008). The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of perceived risk on food safety consciousness and food safety pursuit between seoul & shanghai consumers: Focused on food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3), 215-244.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12). Consumer perception and purchasing behavior research on food imports.

Yoo, H. J., & Joo, S. H. (2012). Development of consumers' perceived food safety and food safety competency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4), 79-104.

Yoo, H. J., Choi, E. S., Kim, S. S., & Lee, J. E. (2011). *Consumers living and life safety risk society*. Seoul: dymbook.

Yoo, H. J., & Joo, S. H. (2014). Consumers' perceived food safety index and food safety competency index. *Survey research, 15*(2), 23-70.

Yoon, H. J. (2007). *Elementary school students' knowledge, behavior and preference for education method associated with food saf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Yun, J. S. (2006). A survey on attitudes of toward *food hygiene, safety and awareness of haccp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Yeungnam, Korea.

□ Received: December 10. 2015
□ Revised: June 2. 2016
□ Accepted: June 13. 2016